

# 가정예배 5월 셋째 주

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

**함께 기도**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.

저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도록 도와 주세요.  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

**함께 찬양**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.

모든 상황 속에서

**함께 읽기**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.

요나서 2:1-4

**함께 묵상**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.

**1** 요나서 2:1-2절을 읽으세요. ‘물고기 뱃속’을 2절에서는 ‘스울의 뱃속’이라고 표현합니다. 스울은 ‘죽음’, 혹은 ‘무덤’이라는 의미입니다. 또 ‘물고기 뱃속’은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. 우리 삶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. 이곳은 죽음으로 가는 무덤이 될 수도 있고, 변화되고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은 어떤 곳과 같이 느껴 지십니까?

**2** 요나서 2:2를 다시 읽으세요. 요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. 내 상황과 고통을 무시하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. 당신의 상황에 하나님은 늘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까? 멀게 느껴 지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껴 지십니까?

**3** 요나서 4절을 읽으세요.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결단을 합니다.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겠다고 기도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봅니다.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. 이번 한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

**함께 나눔**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.

**1** 코로나19가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, 정부와 관련자들  
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

**2** 교회 마다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게하시고 시련의 때를 지나는 동안  
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

**3**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허약한 성도들, 어린이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,  
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소서.

**주기도문**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.